

사설

불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신도회 결성 준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었다. 지난해 상무대 부정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조계종 신도회장이 구속됨으로써 전국신도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조직이 와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계종의 비자금 127억원 의혹사건은 그 당시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되기도 하였다. 마침내 불교계가 부패한 정치권력과 밀착되었던 관계를 끊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개혁불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드라마같은 노태우씨의 부정축재사건을 보면서 상무대 비자금사건의 실체를 이심전심으로 어렵게나마 새삼 알게 되었다.

이제 조계종은 개혁종단이 출범하여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의 물꼬를 댔다. 새로 정비된 종헌종법에 의거 개혁종단이 출범한 지 한해를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종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종무원장을 비롯하여 종단의 지도자들이 불교의 자주화·민주화를 내걸고 착실히 개혁불사를 추진함으로써 불교계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고 제도를 고치는데 힘써 온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종무행정 곳곳에 개혁과 변화의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신도회는 구성과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게 겪고 있다.

조계종 개혁이 있기 이전까지는 신도회 책임을 맡았던 일부 불지각한 불교인들로 인해 불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도회가 어용·부정부패 이권거래의 폐습을 청산하고 제도를 구비하며 인적·물적구조를 혁신하는 데는 자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계종 개혁종단에 부응하는 새 중앙신도회의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출범준비에 들어갔음을 환영하면

열린 마당

조계종 개혁 집행부 1년

역경·포교·도제양성 3대사업 기반 조성
구습남아 일반신도 '개혁 공감대' 못이뤄

참시켰으면 한다.

신도회구성 자율적으로

▲이문옥 <전국불교연맹총연합회(공동회장)>=현 개혁종단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온 사 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를 희망했다. 신도회 구성문제만 해도 그렇다. 총무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재가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율적 활동을 저해시키고 신도회를 총무원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변해야 사부대중이 화합할 수 있고 그래야 불교가 발전한다.

군포교 지원·인력 확충

▲강남석 <군순단장>=우선 조계종 집행부가 구시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1년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길 많은 불사를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교육원과 포교원 등의 발원하는 개혁종단의 배움을 수 있는 성과중의 하나다. 특히 포교원을 중심으로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군포교분야에 군순요원의 충원과 지원은 군포교를 담당하는 현역 법사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이다.

부조리 척결의지 필요

▲남지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1년이란 짧은 시간이다. 긴 세월의 부조리를 무너뜨리고 불교의 새 방향을 정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에

행정기능 활성화돼야

▲염배삼 <조계종 총회의원>=교육원과 포교원이 각각 발원화된 집행부의 출범은 역경 포교 도제양성이라는 종단의 3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종단운영의 민주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개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헌종법대로만 수행해 나간다면 종단개혁불사는 별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스님들의 의식이 아직도 구습에 갇혀 있어 불교신도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상무대 비리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권불유착사건으로 불교가 자주성을 잃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경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본사에서 교계의 관심과 참여속에 폐습·관행을 탈피 '정' 스티커보급운동도 이렇게 실효된 불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서 시작하였다.

“욕심을 다 놓아야 한다”

▲원영성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장>=잘해 보려는 욕기와 의욕을 일단 놓아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여겨진다. 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스님네들이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마음의 욕심을 다 놓아야 한다. 옛날에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축생을 보고 “발(發) 보리심하여라”고 말하자 축생이 “너는?” 하면서 응답했다는 우스개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 종단집행부가 깊이 새겨볼 만한 얘기라 여겨진다.

비구니 동참에도 관심

▲법성스님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개혁불사를 잇는 개혁종단의 1년은 어려운 살림살이었다. 다만 처음과 달리 비구니들에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는 비구니들도 자비와 섬수로 포용해 진정한 종단화합과 발전에 동참

개혁종단 무엇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지난 10월 경복궁과 광화문의 대표 자리를 내 놓았다. 이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원주 총무원장의 향후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되고 있다. 경복궁과 광화문은 월주 총무원장이 총무원 임성 전부터 대표를 맡고있던 단체이다. 스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회의 대표적 분야 즉 사회·경제정의와 남북교류라는 사업추진 때문에 스님은 대표자리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의 일을 접고 종단 기틀뒤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종단 1년을 지켜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 발원회는 종단의 3대 과제인 도제양성과 포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3원체제 확립·인력 전문화·행정쇄신...인사 허점 '흠'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한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종단을 비롯 전국 본말사 주지들에 대한 연수와 각 단체들의 폭 넓은 연수교육은 시대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승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개혁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이 를 기조로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 △수도·교육·포교·역경사업의 적극적 추진 △개발업의 사회화 운동 추진 △대중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상당부분 이 성과를 유보한 채 해를 넘어가 게 됐다. 법계법 승가고시법 총림

관장, 중앙승가대 이전문제도 현재 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총무원장 기획실장 등 중요 소임 자가 몇개월을 못 넘기고 교체되는 등 그동안 10여명의 소임자가 바뀌 었는데 인사가 만사인 점은 종단 도 마찬가지다.

총무원의 위상은 약해지고 반대로 종회의 권위가 강화됐다는 시각도

실치법 법인관리법 의제법 등 미비 된 법령의 제·개정도 산적해 있다. 종단 최대 역점사업으로 부각 시켰던 사찰운영위원회의 구성도 지 지부진이다. 사찰사망 및 법인체의

있지만 어쩔수 없는 과도기 현상이 라 여겨진다. 종도들을 대표하는 입법기구로서의 종회의 견제와 비 관을 겸허히 수용하며 상호 협조한 다면 종단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이 교계의 분석이다.

어떤 사안에 성명서만 내고 후속조치가 없다가 나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기에는 앞으로의 3년이 너무 짧은 것이다.

사찰제정의 공명화·투명화, 공정한 주지인사, 승중확립, 후속법령의 정비, 신도회 조직 재정비 등 흔들 리없는 지속적 개혁을 하나하나 구 체화시켜 가는 과제가 출범 한들을 맞은 집행부에 남아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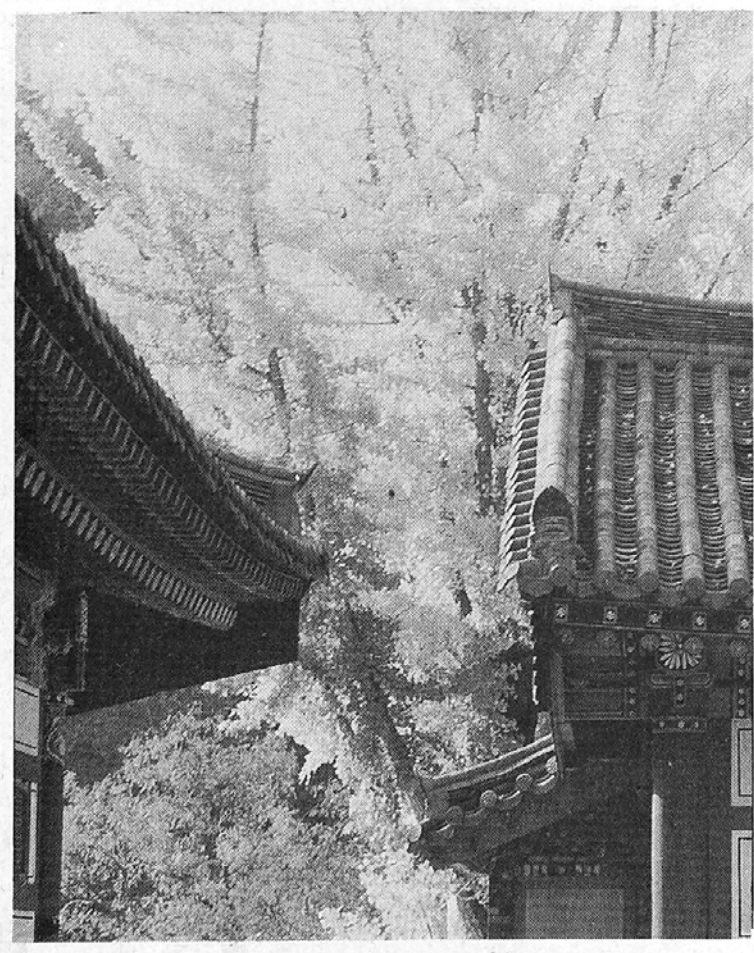


◇ 조계종 개혁종헌에 의해 출범한 개혁집행부가 1년을 맞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종무원장의 취임식 장면.

현대만평



어두운 곳이 많은 이대에...



부산불교실업인회 주최

불·교·발·전·대·강·연·회

신심이 무르익은 이 계절, 교계의 큰 스님과 석학을 모시고 <불교발전대강연회>를 갖습니다. 불심을 더욱 복돋을 이번 대강연회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39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국제문화센터 대강당 (국제신문 4층)

초청연사



근일 스님
·부석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위원
·대구 능인학원 이사



송석구 박사
·동국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사단법인 율곡학회 대표위원
·한국승정학회 회장

■ 강연회 당일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갖습니다.

- 중학생 13명(260만원) ·고등학생 7명(210만원)
- 대학생 2명(160만원) ·대학원생 2명(200만원)

후원 불교TV(주)·BBS·불교신문 및 교계언론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부산불교신도회 및 신행단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부산·경남모임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敎實業人會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4 국제T 1805호 TEL.466-7174~5, FAX. 466-7176

Table with 10 columns: 회고, 장문, 김강서, 정병준, 태중석, 부회장, 조병희, 영봉, 준도, 감동, 사사, 정호, 호수, 철복, 근영, 호영, 호석